

0813(토) 예레미야 25-29장 누가 참 선지자인가?

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조력자를 보내 주셨습니다.

서기관 **바룩**은 동역하며 그의 고난에 동참했고(32:12, 45:3),

요시아 개혁의 중추에 서 있던 **사반 가문**은(왕하22장)

위기에 빠진 예레미야를 구하고 예언 장소를 제공하며

왕/고관들과의 사이에서 다리 역할, 완충 역할을 했습니다.

(26:24, 36:11-13,25)

반면, 많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예레미야를 대적했습니다.

특히 거짓선지자들은 예레미야와 상반된 예언을 전했습니다.

제앙과 칼, 기근을 부정하고 살롬, 평강만을 외쳤습니다(6:14,8:11).

하나님을 등지고 백성들과 영합하며 권력과 부를 쫓았습니다(18:18, 5:27-28).

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행태를 신랄하게 고발하십니다(23:9-40).

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분별은 쉽지 않았습니다.

둘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(messenger formula) 예언했고, 상징행위를 했습니다.

더구나 거짓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<민족주의적> 성향이 강했고,

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예언은 다분히 <친 바벨론 적>이었습니다.

예레미야는 하나냐의 예언에 ‘아멘’으로 반응합니다(28:6).

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부로 단정 짓지 않는 겸손함입니다.

그는 하나냐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.

주신 정확한 말씀 외에는 <내가>를 주어로 신중하게 말합니다(28:7).

특정 말씀을 받았다고 그의 생각 전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.

그러나 하나냐는 모든 것을 <하나님> 말씀인 듯 선포하며,

자기 예언만 하나님 말씀이라는 태도를 보입니다(28:2,11).

말씀을 분별하는 일은 하나님의 시간을 요합니다.

<메시지의 내용>보다도 예언의 증험과 성취가 중요합니다(28:9, 신18:22).

누가 참 선지자인가? 하나님과 선지자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(23:16-22).

나는 겸손과 신중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니까?

❶ 겸손과 신중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일하심, 성취에 집중합니까?

❷ 나의 뜻대로 해석하고 평가하며 선불리 단정 짓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예레미야 25-29장